

건강한 속사람 II.

영적인 사람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요한일서 4:1]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 몸, 정신과 영혼 (BODY, MIND, SPIRIT)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육신’ 이 있는 몸으로 만드셨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뜻한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서로 영향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지만, ‘영적’ 이라는 개념안에는 몸과 정신의 온전한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는데 정신적 영역(감정, 이성, 생각 등) 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건강한 속사람이란?

몸과 정신과 영혼이 온전한 속사람을 말한다. 하늘과 땅이 균형을 이루는 온전함을 말한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영이신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몸과 정신 모두가 온전히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다.

3.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영혼과 인격을 다루는 일들이다.

우리 모두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며, 균형잡힌 존재들이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커다란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

4.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건강한 속사람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그런데 보통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일’ 이란 땅과 분리되어 있는 하늘이 아니다. 영과 분리되어 있는 정신과 몸이 아닌 것이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면’ 과 ‘육적인 면’ 으로 접근하는 일들 또한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육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신적, 영적인 문제 또한 해결 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육체적인 원인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영적인 병

두 번째 진단은, 이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면 영적인 질병인가? 에 대한 진단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관한 영역이다.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는 확신의 결여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 죄책감, 죄의 문제 등)

(3) 심리적인 병

매우 민감한 영역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사람들의 심리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침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활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기분의 사람도 있다. 정신병의 경우 이러한 현상들은 병의 실재성을 보여준다. 육신의 질병이 장기의 화학적 문제로 발병하듯이 정신병도 뇌의 화학작용이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견해를,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이다.

* '리처드 백스터' (3백년 전의 청교도 작가)

'나는 그 증상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이 건전한 이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한, 환상이나 사고기능은 정상적이며 병적이지 않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우울증 (즉, 정신병)이란 병적인 정신이상, 상상력의 마비나 결여, 그에 따른 이해력 부진 등을 말한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빈곤' 으로 구분했다. 좋은 구분이다.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진단이 필요하며 치유가 필요하다.

(4)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제 건강한 속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일은 영, 정신, 몸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진단을 해야한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땅에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맞는 진단과 치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땅을 변화 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의 몸을 소중히 경작하고 건강하게 지켜 나가야 함을 명심하자.

(5)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전함의 모델이시다. 100% 영이시고, 100% 육이신 예수님의 온전함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질병을 고치셨고,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질병을 고치셨고,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배고픈 자에는 먹을 것을 주셨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셨다.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 자신감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든 힘은 이 땅의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일에 집중되셨다. 예수님의 치료는 한 번도 같은 방법이 없었다. 각 사람의 형편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전인격적이고 세밀하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